



The Nursing Times

Sol-Times 6th Edition

회장 우주희 dmb01100@naver.com

기사부장 이유나 lyn9328@gmail.com

사진부장 최수지 suz729@naver.com

편집부장 주선미 tjsal2130@hanmail.net

총무 손건우 gun9236@naver.com

VOL.06 (03.01~03.31)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Woosong University

Published on 04.01.2016 Copyright © Sol-Times

깊이 있는 교육, 경쟁력 있는 실습

- 일산병원 산학협약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2016년 2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하 일산병원)과 산학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 중 20여명을 선발하여 겨울 실습 6 주간 일산병원에서의 실습 지도 및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일산병원 취업 시 이러한 실습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바로알기!

치매예방교육

3월 23일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대전광역시치매센터에서 주관한 것으로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강의의 주를 이루었다. 또한 치매를 진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테스트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하며 어떤 문항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교육받을 수 있었다. 치매란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엄격하고 꼼꼼한 절차를 거쳐 진단되는 질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특히 치매 예방 운동법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학생들이 간단한 동작을 따라 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부만 해서 골골? 축구에서 Goal Goal!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2016년 우송대학교 총장기 축구대회' 예선전 첫 경기에서 글로벌 철도학과와 글로벌 의료학과 팀을 상대로, 3-0의 승리를 거뒀다. 이날 4-2-3-1 포메이션으로 나온 간호학과 축구팀은 3학년 원동욱을 원톱으로 내세웠다. 이후 1학년 최진성은 경기시작 채 10분도 되지 않아 페널티박스에서 선재골을 넣었다. 전반 종료 5분전에도 역시, 최진성은 3학년 조병근의 도움을 추가골로 연결했다. 글로벌 철도와 의료의 날카로운 반격이 이어졌으나,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으며, 후반 종료 5분전 최진성의 어시스트로 원동욱의 승리 확정골로 경기는 종료되었다. 한편 '2016년 총장기 축구대회'는 4월까지 진행되며, 솔브릿지 국제대학 팀과의 2차전은 오는 4월 2일 12시 30분에 서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우송간호인 모두가 하나된 축제

"M.T. (Membership Training)"



2016년 3월 18일 우송대학교 스포츠 센터에서 간호학과 M.T(Membership Training)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8개 팀으로 나누어 각 팀은 42명 정도로 간호학과 한국인 교수와 외국인 교수를 각 한 명씩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1학년 새내기부터 최고 학년인 4학년이 함께 힘을 합쳐 팀 별로 '큰 공 굴리기', '롤라후프 릴레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게임에 참여하고 간식을 먹으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평소 다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각 방 별 주기적으로 '파자마 토크'이라는 친목 도모 시간을 갖고 있지만 바쁜 학과 생활로 인해 전 학년이 모두 모일 기회는 흔치 않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날 행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며 이에 대한 결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SOL-FUN"

2016-1st semester 전 학년 미팅

지난 2016년 3월 9일 우송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전 학년 학생들과 교수진이 2016년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전 학년 모임 진행은 정은영 학과장의 개회와 학과 소개, 학교생활 안내 순으로 간호학과 교수진과 조교를 소개하고, 연간 교내 행사와 학생회 소개, 간호학과 프로그램 및 학과 규칙 안내와 재학생 활동보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소개된 교수진은 Emilie Marin Lopez 교수, Karl Mischler 교수, Sonia Benghida 교수이며 새롭게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새내기 콘서트, MT 등의 예정된 연간 교내 행사와 간호학과 선후배 친목 모임인 버디버디와 VS프로그램이 안내되었으며, 서울대병원 전국간호대학생대상 견학프로그램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서울시보라대병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활동내용과 소감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Incarnate Word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민주(3학년), 바탐 국제 대학교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민아(2학년)와 3명, 그리고 정강산 대학교 어학 연수를 다녀온 임수빈(3)의 1명의 프로그램 활동 보고로 마무리되었다.

Global Nursing, 이제는 아랍으로!

- Globalization of nursing in UAE 특강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우송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랍권 국가 간호사 진출에 관한 특강이 열렸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강의는 정은영 간호학과장의 UAE의 sheikh Khalifa Speciality hospital 교육훈련팀장 Sojung Jane Kim 강사의 소개로 시작하여, UAE와 Khalifa 병원 소개, 병원에서 생활, UAE 에서 간호사의 전망, 아랍 국가의 문화 소개 등의 전반적인 정보에 이어, 현재 해외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선임자로서 Global Job을 원하는 간호학생들에게 권유하는 말로 끝을 맺었다. Sojung Jane Kim 교육훈련팀장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언어와 간호학 지식과 스킬은 밑바탕으로 필요하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리더십과 그 외의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며, "간호사라는 배경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 분야와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좁은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조언의 말을 전했다.

우송간호인 8번째 NCLEX-RN 미국간호사면허증 취득자 탄생

- 3기 졸업생 박소희 인터뷰



1. NCLEX-RN 합격한 소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NCLEX 때문이었어요. 쉽지 않은 4년이었지만 취득하게 되어 기뻐요.
2. 현재 신규간호사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NCLEX-RN을 준비해 온 과정
저는 학부 생활 때부터 NCLEX를 따야겠다는 목표를 세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웨이팅 동안 공부를 조금 하다가 입사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적응하느라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책을 펴놓고 영영 울기도 했고 며칠 동안 퇴근하면 바로 잠만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NCLEX를 따고 싶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전후 짬짬이 공부를 했고, 자기 집에는 꼭 외워야 하는 것들만 훑어봤어요.
3. NCLEX-RN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조언
일단 학교 NCLEX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따로 비용을 내고 학원에서 인강을 듣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론을 탄탄히 하고 나서 기술 문제를 보는 게 유형 파악에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자기가 모든 파트의 이론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기술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파트의 이론을 다시 보는 것도 효율적인 것 같아요.
4. 본인에게 NCLEX-RN 취득의 의미
NCLEX는 제가 예전부터 꿈꿔오던 제 자신의 미래를 현실화 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이자 하나의 선택지예요. 사실 아직 간호가 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만큼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고 지금은 그저 한창 배워야 할 시기가 목적이라고 말하기엔 아까워 있지만 임상에 나와보니 더욱더 NCLEX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진작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님들도 진작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정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있는 때가 올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든 응원할게요. 파이팅!



<서울대병원 UAE 왕립 세이크칼리파병원>

[사진 출처] 연합뉴스